

'군산야행' 색다른 추억 선사

28일~29일 이틀간 가을밤거리 밝혀 역사·문화활동 등 54개 프로그램 운영

무더운 여름이 가고 조금은 쌀쌀해진 날씨, 덥지도 춥지도 않아 나들이 나가기에 더할 나위가 없는 10월의 가을 밤, 군산의 밤거리에 역사와 문화의 향연이 또 다시 펼쳐진다.

군산시는 지난 8월, 특색 있는 군산만의 문화유산을 통해 새로운 야간형 문화관광 콘텐츠로 큰 호응을 얻었던 '군산야행(夜行)'이 오는 10월 28일과 29일 이틀간 올해의 그 두 번째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가을밤! 근대문화유산은 잠들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근대역사박물관을 중심으로 반경 2km 이내에 분포한 다양한 지역 문화재를 거점으로 연계한 문화유산 빛의 거리를 거닐며 전시·관람, 문화재 답사, 거리 테마공연, 플라마켓, 체험활동 등 54개의 다양한 프로그램

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게스트하우스를 활용한 군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와 추억을 즐길 수 있는 ▲군산 기억창고(우리동네이야기) ▲시립예술단 플래시몹 공연 ▲7080 달빛음악회(마음과 마음, 신계행, 강은철, 한승기 출연) ▲영화 타자에서 강렬한 연기를 선보인 김경익 배우가 연출한 쌀 수탈 테마연극 '아리랑 rhapsody(환상곡풍가악곡)' ▲전국 버스커들이 모여 치열한 경연을 펼치는 버스커즈 in 군산 전국대회 등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롭게 준비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10월의 군산야행은 주무대 기념식을 개최하지 않고 다양한 거리공연과 체험형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되어 풍성하고 색다른 추억을



군산시는 10월 28일과 29일 이틀간 근대역사박물관을 중심으로 군산야행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선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봉곤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군산야행은 군산시가 국내 최고의 근대문화유산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에서는 다양한 콘텐츠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군산야행이 전국 최고 야행으로 손꼽힐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시민참여예산위 사업선정 박차

내년도 편성과정 주민참여 재정 민주주의 실현 성큼

익산시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운영되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장 조방영)가 내년도 사업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다.

올 3월 제5기 시민참여예산위원회는 위원 선정 및 위촉을 시작으로 익산 무형문화재 통합전수관에서 시민예산 학교를 성황리에 끝마쳤다.

내년도 예산선정을 위한 의뢰수렴 단계인 시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는 9월 4일~10월20일까지 총20회를 진행하고, 제안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제안된 사업은 각 사업부서의 검토를 거쳐 11월에 개최될 민관협의회(위원장 부시장)에서 최종적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선정된다.

시는 오는 12월에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갖고 올해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결산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고 내년도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협의한다. 적극적인 시민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하고, 사업 발굴에 기여할 계획이다.

시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해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도다. 시민참여예산위원회는 안전행정·문화산업·복지환경·미래농정·건설교통분과 등 5개 분과 50명으로 구성됐다.

최근 3년 시민참여예산제를 통해 반영된 예산을 살펴보면 2015년 3,700만원에서 2016년 2억6,200만원으로 7배 가량 예산액이 증가했으며 2017년에는 12억4,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익산=장영원 기자

이웃사랑 실천 '최종희 부뚜막' 동참

군산시 수송동 행복센터 해피푸드 사업 협약체결

군산시 수송동 행정복지센터가 17일 지곡동 군산의료원 인근에 소재한 외식업체 '최종희 부뚜막(대표 최종희)'과 'Happy Food' 사업의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수송동행정복지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Happy Food' 사업은 관내외·간식업체와 협력하여 관내 저소득층에게 정기적으로 먹거리를 지원함과 동시에 지역 나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특화사업으로서 이번 협약을 통해 '최종희 부뚜막'은 수송동 Happy food 사업의 다섯 번째 업체가 되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종희 대표를 비롯해 전종신 수송동장, 임성택 천사누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등 관계자 9명이 참석했으며, '최종희 부뚜막'은 이번 협약에 따라 관내 경로당에 갈비탕과 김치전골 등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매월 지원하고 품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 발굴과 연



군산시 수송동 행정복지센터가 17일 지곡동 군산의료원 인근에 소재한 외식업체 '최종희 부뚜막'과 'Happy Food' 사업의 협약식을 체결했다.

계하고 Happy food 사업을 홍보·전파하여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펼치게 된다.

전종신 수송동장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경로당에 지원의 손길을 보내주시는 최종희 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해 주셔서 도움을 받는 분에게는 따뜻한 온정을, 주변에는 수송동의 품격을 느끼게 해

주셨다"고 전했다.

최종희 대표는 "건강과 경제적 어려움에 노출된 어르신들에게 한 끼 식사라도 대접해 드릴 수 있어 오히려 기쁘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주변 지인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나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FCI 국제 도그쇼 21일 팡파르 익산 보석박물관 내 잔디밭

오는 21일 익산시 보석박물관 내 잔디밭에서 우리나라의 애견 문화 발전을 위한 '2017 익산 FCI 국제 도그쇼'가 개최된다.

(사)한국애견연맹 익산지회(지회장 이상완)가 주관하고 익산시가 후원하는 이번 '2017 익산 FCI 국제 도그쇼'는 로트바일러 스페셜티 쇼를 포함한 FCI 국제 도그쇼 2회, KKF 챔피언십 도그쇼 2회총 5개의 도그쇼가 함께 진행된다. 진땀겨울을 비롯한 토종견과, 치와와, 로트바일러 등 수입견 70여 견종 약 1,600두가 넘게 참가해 서로 다른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애견훈련시범을 비롯해 애견상식 퀴즈, 애견달리기 대회, 각종 이벤트는 물론 22일에는 반려동물 무료진료가 이뤄지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진행된다. 국제 심사위원의 심사로 인터내셔널 챔피언 선발 대회도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2017 익산 FCI 국제 도그쇼'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행사장소인 익산 보석박물관에서는 화석전시관, 공룡테마공원, 주얼갤러리 등 다양한 볼거리를 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 대회가 건전한 애견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군산시는 전북도,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와 함께 오는 21일과 22일 이틀간 '근대 골목길 Festival'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축제 자료사진.

'추억의 골목길' 그 시절 속으로...

군산시, 21~22일 근대 골목길 페스티벌 개최

풍요의 계절, 가을을 맞아 군산시는 전북도,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와 함께 오는 21일과 22일 이틀간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추억의 골목 문화 체험을 제공하는 '근대 골목길 Festival'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근대골목길 festival'은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는 가을 여행주간(10. 21.~11. 5.) 공모사업에 선정돼 관광객들에게 추억의 골목 문화를 체험하며 세대간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군산의 대표적 관광지인 시간여행마을 일원의 골목길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근대 추억의 주전부리와 추억의 놀이터(고무줄 놀이, 윷놀이, 제기차기, 딱지치기 등), 길거리 공연을 마련해 행사장을 찾는 이들에게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할 예정이며, 근대미술 공연, 활동마임 공연, 아코디언 연주 악극단, 재즈 공연과 퍼레이드 등의 공연과 근대 신(新)한복을 대여해주는 근대양장점, 손거울·목걸이·팔찌 만들기 등의 다양한 체험, 그리고 '시간여행 스탬프 투어'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군산만의 독특한 매력을 선보인다.

시에서는 이번 가을 여행주간을 맞이하여 군산시 원도심에서 가을의 아름다운 낮과 밤을 느낄 수 있도록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행사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눈과 귀가 즐거운 시간여행을 제공할 계획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적십자회비, 지금 희망을 심어주세요.

- 금융기관
- 가상계좌
- 인터넷
- 전화
- 편의점
- 신용카드 포인트
-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전라북도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지사

응급 구호품 세트

홍보대사 안재욱